

# 韓國式銅劍分類 三論

—退化型을 中心으로—

金 英 夏

一

韓半島에서 初期金屬器文化의 遺物이 나온 遺蹟 가운데 비교적 일찍 부터 學界에 소개된 곳이 몇 군데 있다. 明刀錢과 多量の 鐵製品이 함께 나온 渭原龍淵洞、五銖錢과 靑銅車輿具·銅劍등이 나온 黃海道 黑橋驛부근、漢式仿製鏡과 銅製裝飾品、scythae系 動物形帶鉤가 나온 永川 漁隱洞、鐵劍片과 많은 靑銅製品이 함께 나왔다는 慶州 入室里 등이 그것들이다. 이들 遺蹟에서 나온 遺物을 中心으로 하여 一九二二年度古蹟調査報告》에서는 南韓에 있어서의 漢代의 遺物이란 이름을 달고 中國의 貨幣와 銅鏡등을 근거삼아 그年代를 설정하였다.

光復後 北韓에서 실시한 台城里 발골에 의하여 土墳墓에서 韓國式銅劍이 나온다고 보고 ①된 이래 入室里、漁隱洞、九政里 등 遺蹟도 土墳墓 일 것이라는 解釋이 流行하게 되었다. 그러나 最近 忠南地域을 중심으로 石棺墓系 遺蹟에서 보다 始源的인 靑銅遺物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韓國式銅劍을 비롯한 韓國의 靑銅器文化의 編年에 새로운 觀點에서의 考察이 要求되고 있다. 西谷正氏가 土墳墓의 分類②를 통하여 細文鏡、銅劍銅劍이 Set을 이루는 遺蹟은 年代가 앞선다고 보고 入室里 出土 細文鏡은 傳世品이라는 見解③를 밝힌 바 있거니와 이런 것이 바로 새로운 視角에서의 考察의 一例이다.

一九六〇年 遼寧省 朝陽十二台營子 石棺墓에서 多鈕鏡、遼寧式銅劍 등

이 出土되었다는 보고서④가 나오자 金元龍氏⑤는 韓國靑銅鏡의 起源을 十二台營子에서 구했고, 秋山進午氏⑥는 劍柄을 기준으로 東北아시아의 銅劍을 분류하였고, 森貞次郎氏⑦는 北九州의 甕棺 編年을 근거삼아 舶載된 靑銅劍의 型式을 분류하였고, 尹武炳氏⑧는 劍身의 등대(脊)에 있는 稜角(鎊)에 의하여 I·II式으로 나누어 韓國式銅劍의 型式分類에 이바지하였다.

위의 여러 研究에 힘입은 바 적지않으나 한편 納得키 어려운 점들이 없지않아 筆者 나름대로 劍身 등대(脊)위의 節帶를 기준으로 하여 韓國式銅劍을 四型式으로 나누는 試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丁類 晩村洞式 이후의 退化型과 그 소멸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한 言及을 하지 않았기에 여기에 그에 대한 愚見을 밝히고 아울러 前者에 未盡한 바를 보태고자 한다.

二

韓國式銅劍은 合範鑄造로 말미암아 생기는 鑄造자욱(日本用語·甲張)을 제거하고 날을 세울 때 所謂 古遼寧式銅劍의 殘影에 의해 扶入部가 형성되고 동시에 등대도 研磨하여 扶入部 上下의 同一直線上에 節帶가 생기게 된다. 두개의 節帶 가운데 鋒部 쪽에 먼저 생긴 것을 第一節帶、莖部 쪽에 나중에 생긴 것을 第二節帶라 命名하고, 이 兩節帶의 形成過程을 기준삼고 동시에 伴出遺物의 性格을 고려하여, 扶入部가 形成되려할 뿐 아직 第一節帶조차 形成되지 않았는 甲類 蓮花里式、第一節帶가 形成되었으나 아직 扶入部 아래로 稜角이 없는 乙類 槐亭洞式、第一節帶가 있고 아직 第二節帶가 形成되지 않았는 丙類 大谷里式、第一 및 第二節帶가 모두 形成된 丁類 晩村洞式으로 크게 四分하였다.

丁類 晩村洞式 以後의 銅劍의 退化 과정은 莖部까지 稜角을 세운 것、刃部 兩側에 血溝를 만든 것、扶入部、節帶가 退化된 것、多槌式·深槌式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여러 退化型을 各遺蹟에 就하

여 考參하겠다.

(1) 莖部까지 稜角을 세운 銅劍.

a) 台城里十號西⑩…平南 江西郡 台城里에서 銅劍一、銅銼一、車軸頭2、乙字形金具一、笠形金具二、蓋弓帽三、筒形器一、鐵銼一、鐵斧二、鐵鎌 深鉢形土器등이 나왔다고 한다. 그중 銅劍은 第一、二節帶가 모두 形成된 晚村洞式으로서 莖部에 이르기까지 稜角을 세운 退化型이다. 蓮花里式、槐亭洞式、大谷里式에서는 劍身基部(關)아래까지 ⑩ 稜角을 세운 例는 없고 이것은 晚村洞式 이후에 이르러 비로소 나타나는 현상이다.

b) 坪里洞⑫…大邱市 坪里洞에서 銅劍圓蓋形銅器、漢式仿製鏡、S字形鏃、銅製戈鞘、銅鐸等 一〇〇餘點의 一括遺物이 出土되었다. 銅劍三點은 모두 第一節帶가 있고 段을 지워 挾入部 아래로 稜角을 세운 上一洞出土劍과 같이면서 莖部까지 稜角을 세우고 있다. 이 一括遺物에 대한 자세한 報告는 현재 준비중에 있으므로 뒤로 미루어둔다.

(2) 刃部兩側に 血溝가 있는 銅劍

a) 晚村洞⑬…大邱市 晚村洞 琴湖江岸의 丘陵地帶에 駐車場 정지작업을 하다가 地表나 地下에 아무런 施設도 없는 곳에서 銅戈一 銅劍三劍把頭飾、劍鞘裝飾具등이 발견되었다. 銅劍 가운데 鋒部가 斷切된 하나는 第一、二節帶가 모두 있고 또 刃部 양측에 血溝가 있는 것이다. 晚村洞의 銅戈는 日本의 所謂 廣鋒銅戈인데 「內」에 半圓同心文이 있고 樋에도 平行屈折文이 있다. 或者는 이것을 日本에서 逆流한 것이라고 말하나 入室里나 飛山洞의 類似例로 보거나 당시의 文化段階로 보아 수긍키 어렵다⑭.

b) 飛山洞⑮…大邱市 飛山洞 臥龍山 기슭에서 五〇餘點의 靑銅一括遺物이 出土되어 商人의 손을 거쳐 그 一部가 湖岩코락손에 수장되어 있다. 銅劍五、有耳銅銼二、銅戈一、蓋弓帽二、虎形帶鉤、觸角式劍把頭飾 鐵製品등인데 銅劍은 모두 晚村洞式으로서 二點은 刃部에 血溝를 가지고 있다. 觸角式劍把頭飾은 이미 他論考⑯가 있으므로 자세한 言及은

피하겠으나 佐賀縣 柏崎 出土의 韓國式銅劍(乙類)과 慶應大藏의 遼寧式銅劍⑰은 劍身은 다르나 劍把는 그 모양이나 文樣이 거의 같은 觸角式이다. 慶應大藏劍은 鋒部가 없으나 劍身 등대 위의 稜角이 人形으로 끝나고 있어서 秋山進午의 遼寧式銅劍編年⑱에 의하면 古式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南城里 石棺墓 出土의 扇形銅斧⑲와 함께 韓國式銅劍의 始源이 결코 單순히 遼寧式銅劍에 求해지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c) 黑橋驛부근⑳…黃海道 海州郡 黑橋驛 부근에서 銅劍一、無耳銅銼一、劍把頭飾一、五銖錢二、乙字形金具、車軸頭등이 나왔다. 銅劍은 血溝가 있으며 莖部까지 稜角을 세우고 있다. 종래 이 五銖錢을 穿上橫文五銖錢으로 보고 年代 決定의 好資料로 삼아왔으나 西谷氏는 이에 대해서 처음으로 疑問을 표⑳시킨 바 있다. 尹武炳氏는 本品를 자세히 實見하고 洛陽 燒溝의 出土品 分類에 의해 東漢前半代에 鑄造된 第Ⅲ型에 가장 相다㉑고 보고 있다. 하지만 五銖錢의 年代가 곧 黑橋驛 銅劍의 上限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3) 挾入部(節帶)가 消滅된 銅劍⑳

a) 天柱里㉒…黃海道 黃州郡 黃州邑 天柱里에서 銅劍一、車軸頭二、乙字形銅器 管形銅器、金銅環、鐵製片耳壺、黑灰色土器壺등이 나왔는데 鋒部가 缺失된 銅劍의 刃部 兩側에는 血溝가 있고 莖部까지 稜角이 세워져 있다.

b) 永登浦㉓…서울 永登浦에서 銅劍一、銅鑿二등이 나왔다. 銅劍은 鋒部가 長大化하고 挾入部 節帶가 소멸되고 莖部까지 稜角을 세우고 있다. 大邱市 大邱中學校庭에서도 小形이라는 點에서는 다르기는 하나 같은 型이 나온 바 있다.

斷面이 六角形인 銅鑿㉔은 溫坊洞에서는 無耳銅銼、槐亭洞式銅劍과 함께 나왔고, 南城里에서는 九자루의 古式銅劍、D式鏡㉕二點。 扇形銅斧

等 一〇〇餘點의 靑銅遺物과 함께 나왔고, 梨堤洞에서는 銅劍片, 銅戈 銅鉞와 伴出하였다. 위에 列擧한 遺蹟들은 모두 晩村洞式劍을 出土하는 遺蹟보다 앞서는 것인데 永登浦에서 斷面六角形의 銅鑿이 晩村洞式以後의 消滅過程의 銅劍과 伴出했다는 것은 疑心스러운 일이다. 正規發掘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伴出의 信憑性은 희박하다고 볼 수도 있겠고 한편 伴出의 事實이라 하면 後代의 混入인지도 모르겠다.

(4) 其他例

傳平壤貞柏里出土의 多槌式劍<sup>29</sup>과 天柱里銅劍 또 金海의 深槌式劍<sup>30</sup>과 永登浦 出土劍이 各各 연결되는 듯하나 出土例가 너무 적어서 斷定키 어려우므로 後考를 기다려야겠다.

平南 石巖里, 傳尙州, 傳論山 등의 銅劍<sup>31</sup>들은 基部가 直角을 이루고 兩端의 稜角이 없고 扶入部·節帶가 없는 것인데 그 出土狀況과 伴出遺物을 전혀 알 수 없어서 規定하기 어려우나 잠정적으로 韓國式銅劍보다 앞서는 것<sup>32</sup>으로 해둔다.

大屯村, 尹家村, 亮甲山 등에서 出土한 變形遼寧式銅劍을 韓國式銅劍의 初期型式으로 보는 說<sup>33</sup>도 있으나 兩端에 稜角을 세우는 方法이 다르고 또 扶入部·節帶가 없어서 劍身의 아래 幅이 윗쪽보다 넓은 遼寧式의 末期에 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겠다.

二

韓國式銅劍이 언제 北九州로 건너가기 시작했는가에 대한 研究로는 森貞次郎氏의 論考<sup>34</sup>가 널리 알려져있거니와 이는 韓國式銅劍의 編年에 他山之石이 되므로 이 기회에 言及해볼까한다.

森氏는 北九州의 舶載靑銅器의 分類를 甕棺의 編年에 근거하여 試圖하였다. 이에 의하면 韓國式銅劍(細形銅劍)은 劍身兩端 幅에 대한 劍身幅의 比로써 B1a, B1b, C로 分類하고 이 가운데 B1a式은 彌生前期 末부터 A·B式 有耳銅鉞, A式銅戈와 함께 渡來한 것으로 보았다. 그

리고 韓國內의 銅劍을 編年하는데 있어서도 A式(遼寧式銅劍)의 流入時期(·) B1a, B1b, C로 나누고 그 上限을 秦戈와 연결시켜 衛滿朝鮮時代로 보고 있다.

그런데 彌生前期 末부터 渡來하기 시작했다는 B1式銅劍, A·B式有耳銅鉞, A式銅戈는 森氏가 생각한대로 平壤地域의 衛滿朝鮮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慶州·大邱·金海地域에 分布하고 있다. 이 地域(慶州, 大邱 金海)은 有耳銅鉞, 槌의 文樣있는 銅戈 등이 集中的으로 나오는 곳이며 또 이들 銅器는 鐵製品을 隨伴하고 있다.

森貞次郎의 韓國銅劍點의 型式과 年代表

樣式	彌生前期末	彌生中期前半	彌生中期中頃	彌生中期後半
銅越	B1a	B1b	B1c	C
銅鉞	A·B	B	C	C
銅戈	A	B	Ca	Cb

日本 北九州에서 彌生時代 前期末에 B1a銅劍, A·B式有耳銅鉞, A式銅戈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森氏의 分類表(註7)의 論文 p.153의 의하면 B1a銅劍이 나오는 遺蹟으로 이즈웨스트프를 들고 있으나 이즈웨스트프出土의 銅鉞는 無耳銅鉞이지 有耳銅鉞가 아니다. 오히려 B1b式銅劍이 나오는 유적지로 分類된 入室里에서 비로소 有耳銅鉞와 銅劍이 伴出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入室里에서는 銅鐸도 出土되고 있으므로 日本 彌生時代 靑銅器의 源流<sup>35</sup>는 차라리 여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일찌기 一九二〇년에 발견되어 出土品의 種類가 多樣하고 數量이 풍부함으로 말미암아 入室里<sup>36</sup>는 南韓地域의 가장 대표적인 靑銅器遺蹟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다. 遺物이 나온 곳은 慶州 入室里驛에서 북쪽으로 약 一〇〇m 地點이며 鐵道敷設工事中 線路 근방의 경사지에서 採土하다가 우연히 발견되어 여러 사람의 손에 흩어졌던 것을 收拾한 것이다. 報告된 主要遺物은 銅劍六, 銅製劍柄一, 銅鉞二, 銅戈一, 細文鏡片二,

銅鐸二、馬鐸五、異形銅鈴三、鐵斧一、鐵劍片、土器等이다。銅劍을 살펴, 보건데 一、二號는 晩村洞式이고 四號는 大谷里式、五號는 上一洞式 三·六號는 槐亭洞式이다。細文鏡은 많이 破損되었으며 緣과 文樣으로 보아 筆者의 E式鏡<sup>39</sup>에 屬한다。지금까지 韓半島內에서 細文鏡은 대개 石棺墓系에서 出土될 뿐이고 上一洞式이나 晩村洞式銅劍과는 伴出된 例가 없다。그러므로 入室里는 銅劍·細文鏡으로 보아 大谷里式의 末에서 晩村洞式의 前期쯤으로 보아 두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銅鉞에 관해서 보더라도 福岡縣 板付出土의 鑿部에 데(箍)있는 길이가 짧은 靑耳銅劍을 近藤高一氏는 韓國北部地方의 製品<sup>40</sup>이라고 보고 있으나 北部地域에서는 有耳銅鉞의 出土例로는 前述한 台城里十號西棺의 粗雜品을 除外하면 그 出土例가 없는 듯 하고 오히려 慶州 坪里<sup>41</sup>出土三點의 有耳銅鉞中 一點에 그 類似例가 있음을 본다。그러므로 韓國의 銅鉞·銅戈의 祖形云云은 아직까지 論斷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앞으로 좀 더 資料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多鈕劍에 관해서 말한다면 日本에서는 蓮花里式銅劍이나 槐亭洞式銅劍과 伴出하는 粗文鏡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고 梨花洞의 三鈕式細文鏡이 山口縣 梶栗濱<sup>42</sup>에서 出土되고 있으므로 이런데서 日本에의 靑銅器 傳來年代를 찾아보려는 努力이 必要하지 않을까。

#### 四

위에서 살펴본 韓國式銅劍의 退化 내지 消滅의 과정을 알기 쉽도록 要約하여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韓國靑銅器文化의 編年은 中國系貨幣·銅鏡과 遺蹟에서의 遺物의 混

入 때문에 지금까지 많이 誤解되어왔다。그러나 蓮花里 槐亭洞 南城里 등 石棺墓系 遺蹟에서 계속 出土例가 증가되고 있어서 韓國式銅劍하면 얼핏 土壙墓와 連關시킬려는 생각은 再考되어야 할 것 같다。

日本 北九州에의 韓國式銅劍의 傳來는 韓國式銅劍이 成立할 무렵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大谷里式銅劍의 末頃부터 傳來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종래 흔히 明刀戈 유적을 너무 지나치게 意識한 나머지 韓國式銅劍의 上限을 B·C、四~三世期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로는 明刀戈의 分布나 存在狀況은 極히 制限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는 생각을 바꾸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특히 最近南城里에서 扇形銅斧가 韓國式銅劍과 伴出하고 있고 永興邑에서는 同種의 鎔范까지 나오고 있어서 B·C 六世紀頃에는 韓國式銅劍(甲類)이 形成되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종래 細形銅劍이라 일컬어던서 그年代를 흔히 B·C、四~三世紀로 잡는 見解가 있거니와 이것은 韓國式銅劍의 型式分類의 差 및 韓國式銅劍의 存在狀況의 認識의 差로 말미암은 것으로 생각된다。即 韓國式銅劍 가운데 後期에 屬하는 丙類||大谷里式 내지 丁類||晩村洞式만을 念頭에 두고 이들 銅劍이 鐵器를 수반한다든가 혹은 漢代 유물과 共存한다든가 하는 狀況에 집착한 나머지 그年代를 낮추어보게 된 것으로 짐작한다。

大谷里式이나 晩村洞式의 銅劍은 이미 鐵器를 알고 있었으며 그年代가 바로 B·C、四~三世紀일 것이다 晩村洞式銅劍 및 그以後의 銅劍은 鐵器와 共存하면서 여러가지 退化型式을 거치다가 紀元前後頃에 이르러 利器 또는 儀器로서의 生命을 잃게 되어 사라진 것이라고 보고자 한다。

#### 「韓國式銅劍分類三論」의 註。

① 李進熙, 《戰後朝鮮考古學의 發展》, 《考古學雜誌》四五一、一九五九, pp. 四六一~六四。

- ② 西谷正, 〈朝鮮에 있어서 이른바 土墳墓와 初期金屬器文化에 대하여〉《考古學研究》一三一—二, 一九六六.
- ③ 西谷正, 〈青銅器에서 본 日朝關係〉《朝鮮史研究會論文集》四, 一九六八, p. 九.
- ④ 朱貴, 〈遼寧朝陽十二臺營子青銅短劍墓〉, 《考古學報》一, 一九六〇.
- ⑤ 金元龍, 〈十二臺營子青銅短劍墓〉, 《歷史學》一六, 一九六〇.
- ⑥ 秋山進午, 〈中國 東北 地方의 初期金屬器文化의 樣相〉, 《考古學雜誌》五三一—四, 五四—一, 五四—四.
- ⑦ 森貞次郎, 〈彌生時代에 있어서 細形銅劍의 流入에 대하여〉《日本民族과 南方文化》, 一九六七.
- ⑧ 尹武炳, 〈韓國青銅劍의 型式分類〉, 《震檀學報》二九·三〇 合併號, 一九六六.
- ⑨ 尹武炳, 〈韓國 青銅遺物의 研究〉《忠南大學校 人文科學 論文集》(Ⅱ卷 三號), 一九七五, 九.
- ⑩ 拙稿, 〈韓國式銅劍 型式分類 試論〉, 《東洋文化研究》四, 一九七七. 및 〈韓國式銅劍 分類 再論〉《韓國史研究》一九. (인쇄중)
- ⑪ ①과 같음.
- ⑫ 莖部까지 稜角을 세우는 理由·刃部兩側에 血溝를 만드는 理由는 伴出遺物과 後述할 天柱里出土銅劍으로 막연히 鐵器영향(?)이라고 짐작되나 확실한 증거는 갖고 있지 못하다.
- ⑬ 遺物은 現在 國立慶州博物館에 진열되어 있다. 또 위의 莖部까지 稜角을 세운 銅劍一點이 嶺南大學校博物館에도 진열되어 있다.
- ⑭ 尹容鎮, 〈大邱市 晚村洞出土 青銅遺物〉, 《考古美術》七—十一, 一九六六. pp. 六一—三의 寫眞과 實測圖를 보면 鋒部가 부러진 血溝있는 銅劍의 莖部(劍身基部 아래)에도 稜角이 있다.
- ⑮ 中國裕, 〈銅戈의 鑄造技術에 의한 分類〉《實驗考古學》, 一九七五, pp. 二二—四—二二—三三.
- ⑯ 岡內三眞, 〈朝鮮出土의 銅戈〉, 《古代文化》二五—九, 一九七三. pp. 二八八—二八九.
- ⑰ 金廷鶴, 〈韓國의 考古學〉一九七二, p. 一一八—一三〇.
- ⑱ 金元龍, 〈鳥形안테나式 細形銅劍의 問題〉《白山學報》八, 一九七〇.
- ⑲ 中國裕, 〈銅의 考古學〉一九七二, pp. 四八—四九.
- ⑳ 中國裕, 〈銅의 考古學〉一九七二, p. 四六.
- ㉑ 韓炳三·李健茂, 《南城里石棺墓》國立博物館 古蹟調查報告 第十冊, 一九七七
- ㉒ 《一九二二年度古蹟調查報告》第二冊 pp. 九五—一〇三.
- ㉓ 西谷正, 〈黃海道 雲城里出土 土墳墓에 대하여〉, 《帝塚山考古學》創刊號, 一九六八.
- ㉔ 尹武炳, 〈韓國 青銅遺物의 研究〉《忠南大學校 人文科學 論文集》(Ⅱ卷三號), 一九七五, pp. 六九四—六九五.
- ㉕ 《一九二二年度古蹟調查報告》第二冊, pp. 一〇八—一一五.
- ㉖ 金良善, 〈再考를 要하는 磨製石劍의 形式分類과 祖形考定의 問題〉, 《古文化》一, 一九六二, p. 七 및 p. 一四에 大邱 達城에서 다른 遺物과 出土되었다는 二點의 劍柄附銅劍은 劍身의 刃部에 缺入部가 없으면서 第一·二節帶가 있는 特殊한 예도 있다. 또 「夫租長印」, 「高尚賢印」과 함께 나온 銅劍(金廷鶴·韓國의 考古學, p. 一一三·삼도. 七九)은 鎊이 나빠 그 形態는 잘 알 수 없으나 등머(脊)위에 稜角이 있고 節帶는 特異한 形態를 하고 있으며 缺入部는 명확치 않다. 黑漆한 檟竿에 「永始三年十二月吞鄭作」이란 銘이 있어 韓國式銅劍의 年代設定에 중요한 資料로 보여지나 伴出遺物, 出土상황 등을 알 수가 없다.
- ㉗ 李進熙, 〈新發見의 土墳墓〉, 《考古學雜誌》四七一—, 一九, pp. 四六一—四九.
- ㉘ 梅原末治·藤田亮策, 《朝鮮古文化綜鑑》第一卷, 一九四七, pp. 五三—五四.
- ㉙ 이밖에도 宋山里·傳靈岩(鎔范)의 예가 있으나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다.
- ㉚ 拙稿, 〈韓國式銅劍 分類 再論〉, 《韓國史研究》(인쇄중) 참조.
- ㉛ 梅原末治·藤田亮策, 《朝鮮古文化綜鑑》, 第一卷, pp. 六八—七〇.
- ㉜ 尹武炳, 〈金海出土의 異型銅劍·銅鋒〉, 《柳洪烈博士 華甲紀念論文集》, 一九七一.
- ㉝ 小田富士雄, 〈對馬峰町木坂新出의 青銅器에 대하여〉, 《對馬의 考古學》附錄篇, 一九七六.
- ㉞ 拙稿, 〈韓國式銅劍 型式分類 試論〉, 《東洋文化研究》四, 一九七七. p. 一〇三.
- ㉟ 金用珩·黃基德, 〈紀元前 一〇〇〇年 年紀前半期의 古朝鮮文化〉, 《古代學》一四—三·四, 一九六八.
- ㊱ ⑦과 같음.
- ㊲ 앞으로 이 問題는 더 檢討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㊳ 小田富士雄, 〈宇佐의 朝鮮 小銅鐸〉, 《日本속에 朝鮮文化》三四, 一九七七.

37 《一九二二年度古蹟調査報告》第二册、p. 三〇—七八。

38 第一節帶가 있고 挾入部下帶아래로 段을 지워 언마한 것으로 晩村洞과 같은 時期라 생각된다(28 論文참조)

39 28과 같다.

40 近藤喬一、《朝鮮·日本에 있어서의 初期金屬器 文化의 系譜와 展開》、《史村》五二—一、一九六九、p. 九七 및 樋口隆康編、《大陸文化와 青銅器》古代史發掘五、一九七四、p. 七二。

41 金載元、《扶餘·慶州·燕岐出土 銅製遺物》、《震檀學報》二五·二六·二七合號。一九六四。

42 全榮來、《韓國 青銅器 文化의 系譜와 編年》——多鈕鏡의 變遷을 中心으로 一九七七、一一·五。第二回全國考古學大會油印物。

(慶北大學校 博物館長)